

지역 소재 금융공공기관 취업 멘토링 행사 ‘눈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지역 최초 8개 기관 공동 개최 1대1 상담 통해 취업 정보 수집...인재 육성 마중물 기대

금융공공기관 취업에 관심이 많은 지역 대학생·취업준비생을 위한 멘토링 행사가 지역에서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5일 1층 강당에서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지역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8개 금융공공기관 합동 취업멘토링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금융공공기관은 광주·전남지역 소재 본부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다.

이번 행사에는 200여명에 달하는 지역인재들이 참석해 최근에 입사한 금융공공기관 직원들과의 1대1 상담을 통해

취업준비 과정 및 필요 역량 등과 관련된 평소에 얻기 힘든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했다.

합동 취업멘토링 행사에 참가한 지역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하는 등 큰 호응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여건 등으로 취업준비 등에 어려움이 컸던 상황에서 취업에 필요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기회를 제공해주었다”며 “행사에서 얻은 정보와 경험이 앞으로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멘토 역할을 맡은 8개 금융공공기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5일 1층 강당에서 지역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8개 금융공공기관 합동 취업멘토링 행사를 열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제공)

현직자들도 이번 행사가 지역인재 육성에 마중물이 되는 뜻깊은 자리임에 크게 공감하고 최선을 다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이번 행사

와 같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지역인재 육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진행해 오고 있는 지역민들

을 대상으로 한 금융경제강좌,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및 소외계층 초청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경제 관련 지역민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역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된다”며 “지역인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재만 기자

수출 中企 54% “물류 어려움 있다”

중기중앙회, 해상 운임 급등 따른 300개사 조사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상 운임 급등 및 선박 부족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최근 흥해 사태와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영향으로 인한 해상 운임 상승 등이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최근 수출 물류와 관련해 중소기업 54.3%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애로사항(복수응답)은 ▲과도

한 운임 요구(79.1%) ▲운송 지연(34.4%) ▲선박 확보 곤란(27.6%) ▲컨테이너 부족(19.0%) ▲화물보관비 증가(9.2%) 순이었다.

중소기업 61.0%는 물류비가 연초 대비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고, 2025년 상반기 이후까지 물류 애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 비중이 41.1%에 달했다.

해상 운송 계약 방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중소기업 96.0%가 포워드 업체를 통한 계약을 하고 있었으며, 선사와의 직접 계약은 4.0%에 불과했다.

계약 형태도 포워드 업체나 선사 직접

계약방식 모두 ‘건별계약’이 각 98%, 83.3%로 ‘장기계약’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안(복수응답)으로는 ▲정부 지원책 활용(32.7%) ▲제품 가격 인상(17.0%) ▲바이어와 거래조건 변경(8.0%) ▲대체 운송수단 모색(8.0%) 등 순으로 조사됐으나 37.7%의 중소기업은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물류 관련 정부의 주요 지원책 활용 경험(복수응답)으로는 ‘물류바우처 사업’ 활용 기업이 34.7%로 가장 많았고 ▲무역보험 특별지원(6.3%) ▲중소기업 전용선박 지원사업(2.7%) 이용 기업도 일부 있었으나, 59.3%의 중소기업

은 이를 이용한 경험이 없고, 이 중 과반(55.1%)은 ‘지원책에 대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중점 지원해야 할 사항(복수응답)으로는 ‘물류비 지원 확대’를 원하는 기업이 82.3%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전용선박 지원 확대(22.3%) ▲대출 상환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14.0%) ▲정부지원책 홍보 강화(9.7%) ▲주요국항 선박 투입 확대(6.0%) 등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물류난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전용선박 지원을 포함한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수출 중소기업 현장 애로 해소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기 현장 수요가 높은 물류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회복세가 꺾이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슬 기자



북광주농협은 15일 초복을 맞아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과일, 떡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북광주농협, 초복맞이 경로당 위문품 지원

관내 30여곳 과일·떡 등 전달

광주농협본부는 15일 “이날 초복을 맞아 북광주농협이 관내 자연마을 3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과일, 떡, 다과, 음료 등 약 7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광주농협은 매년 초복에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관내 자연마을 영농회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위

문품을 전달하고 인부를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해 오고 있다.

구상봉 북광주농협 조합장은 “무더위와 장마속에서 어르신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인부를 확인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북광주농협은 지역사회와 행복한 동행을 위해 노력하고 농업인사기 진작을 통해 고품질의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농어촌공, 농기자재 590만 달러 수출 성과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美 등 19개사와 업무협약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5일 “최근 ‘2024 농기자재 해외 구매 기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5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

다”고 밝혔다. ‘수출상담회’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목표로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이 직접

만나 진행하는 1:1 오프라인 상담회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기업 30개사와 미국, 중국, 동남아 등 15개국의 19개 해외 구매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176건, 1천470만 달러 규모의 1:1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현장에서는 총 59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 3건이 체결됐다. 주요 협약 품목으로는 비료, 농약, 종자 등이 포함됐다. /임재만 기자

특히, 이번 상담회는 지난 4월 열린 ‘K-FOOD+ 구매업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760만 달러의 성과에 이어 큰 규모의 성과를 기록하며, 국내 농업의 해외 경쟁력을 입증했다.

공사는 행사에 앞서 국내기업의 영문 소개자료를 제작하고, 해외기업들로부터 상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를 진행했다. /임재만 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량문화 확산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 에어컨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여름철 26도, 겨울철 20도)
- ▶ 불필요한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 선풍기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인증캠페인

어머님의 마음을 만나다 문의관광업시장

광주말바우시장

말바우시장은 광주 북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입니다. ‘말바우시장’이라는 이름은 말 발자국 모양의 바위(말바우)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는 그 말바우는 없어지고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그 건물사이 골목을 중심으로 장터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광주시 북구청으로부터 인정시장으로 등록되고, 최근 2015년에는 중소기업청 “골목형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의 계속되는 발전을 보이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담양, 곡성, 장성, 회성, 순창 등의 주변 시골에서 농민들이 직접 경작한 생산품을 가지고 나와서 물건을 파는 전통적거래 장으로 보다 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구분 : 인정시장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190-9
개설일 : 공식등록일 2005년

- 점포수 : 511개소 (노점상 900여개)
- 시장면적 : 68,712m²(20,685평)
- 주요취급품목 - 수산·건어물, 농산물, 식품·음식점, 축산·건강원, 의류·기타
- ◆말바우시장 상인회 : 062-262-4082

귀한 것만 주고 싶은 마음
하나라도 더 행여주는 마음
살가운 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주는 1석 3조 혜택을 누리세요~!

- 혜택1 대형마트보다 20%나 저렴!
- 혜택2 온누리상품권 5% 추가 할인!
- 혜택3 사용금액 40% 소득공제!

착한가격! 신선한 상품! 인심에 더하여 정(情)까지!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북구 GWANGJU CITY BUK-GU 문의 : 062)650-2099